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	보도자료			
	보도	2017. 4. 6.(목) 조간	배포	

담당부서	불법금융 대응단	김범수 팀장(3145-8521), 권순표 수석조사역(3145-8526)
	경찰청 수사1과	박찬우 경정(3150-2168), 최진용 경감(3150-177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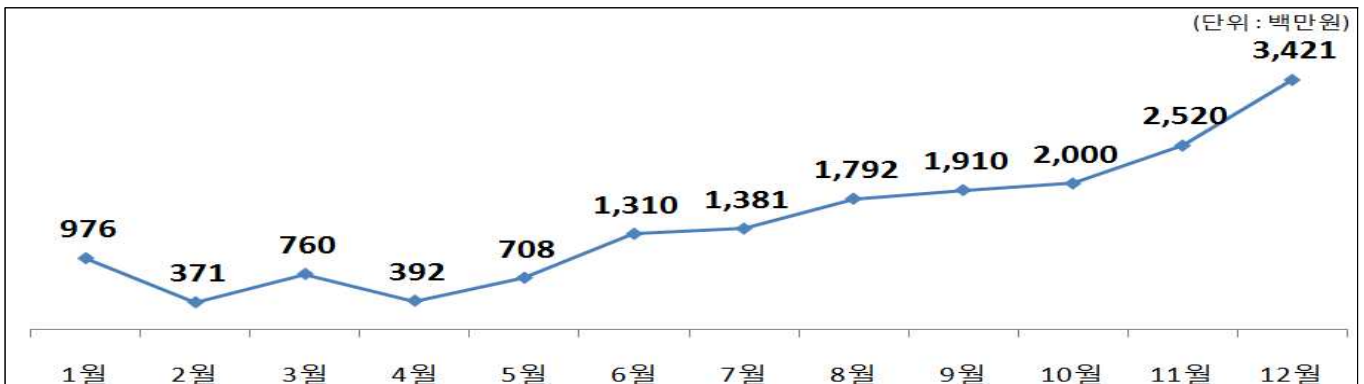
제 목 :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, 소비자경보 발령
 - 20~30대 여성 피해가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전체 피해건수의 74% 차지
 [「3유.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」 이행과제]

■ 소비자경보 2017-2호		
등급	주의 경고 위험	
대상	20~30대 여성	

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- 보이스피싱이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되는 추세*이나
 * 대출빙자형 피해금액 : '15년 1,045억원(전체의 42.7%) → '16년 1,340억원(전체의 69.8%)
- 최근 20~3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·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
- 특히, 사기범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 건물 인근에서 현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점점 대담한 수법으로 진화

'16년 20~30대 여성의 수사기관·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* 피해금 추이(금감원)



* 검찰, 경찰,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접근한 뒤, 해당 계좌가 명의도용 혹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국가에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

2 20대~30대 여성의 피해현황 및 원인 분석

- '16년 수사기관·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중 20~30대 여성의 피해건수는 2,152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74%를 차지
 - 이들의 피해금액은 175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(247억원)의 71%를 차지하고, 동년배 남성(19억원)에 비해 10배 가까운 피해 발생
 - 주로 결혼자금 등을 위하여 모아둔 목돈을 피해당하고 있으며, 현금 전달 사례도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*

*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」에 의하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도 송금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나,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안됨

'16년 수사기관·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성별·연령별 피해 현황(금감원)

(단위 : 건, 백만원)

구분	남성		여성		전체	
	피해건수	피해액	피해건수	피해액	피해건수	피해액
10대 이하	2	27	-	-	2	27
20~30대	233	1,910	2,152	17,541	2,385	19,451
40~50대	86	831	238	2,363	324	3,195
60대 이상	149	1,446	62	581	211	2,027
합계	470	4,215	2,452	20,485	2,922	24,700

-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20~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
 - (사회경험 부족) 20~30대는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사건 등 범죄사태에 대한 직·간접적 경험이 적어 사기에 대한 의심이 적으며
 - 특히,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음
 - (몰입효과) 사기범이 범죄사건 연루,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하며 급박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경우
 - 심리적 압박을 받아 주변에 조언을 구할 생각도 못한 채 사건에만 몰입하는 경향(소위 '몰입 효과')이 있음
 - (사무직 여성에게 접근) 사법기관 등의 권위를 내세운 사기범은 법·규정 및 상사의 지시사항을 잘 준수하는 사무직 여성에게 접근하며 사건번호, 명의도용, 계좌안전조치 등 전문용어를 구사

-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권위와 지식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한 사기범이 접근할 경우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음
- (제압이 용이) 사기범은 현금편취 현상이 발각되어도 물리적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

<붙임 1> 20~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

3 조치사항

- 금융감독원은, 금융회사에 20~30대 여성의 고액 현금 인출 요구시 보이스피싱 피해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,
 - 20~30대 여성이 자주 사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수사기관·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전파
- 경찰청은, 수사기관·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,
 - 금감원,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은행 창구에서 범죄의심 거래시 신속히 출동하여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

<붙임 2> 은행 창구 비치 보이스피싱 예방 진단표

4 소비자 당부사항

-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% 보이스피싱임을 명심
- 아울러 수사기관·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게 양해*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
 - * 양해를 구했는데도 급하다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의심
-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*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림
 - * 대검찰청(☎02-3480-2000), 경찰(☎112), 금감원(☎1332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연번	사 건 개 요	비 고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17. 1. 16.~2. 1. 콜센터에서 20~30대 여성 6명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 도용으로 예금 인출 위험이 있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속인 다음, ▶ 금감원 직원을 사칭, 피해자들로부터 1억 8,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, 7,200만원을 편취하려던 피의자 검거(구속) 	서울·수서 경찰서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17. 2. 13, 2. 14. 이틀간 콜센터에서 2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고 속인 다음, ▶ 금감원 직원을 사칭, 피해자들로부터 7,700만원을 편취하고, 2,000만원을 편취하려던 피의자 검거(구속) 	경기남·분당 경찰서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17. 2. 8, 2. 9. 이틀간 콜센터에서 20대 여성 2명을 상대로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돈을 인출하라고 속인 다음, ▶ 금감원 직원을 사칭, 피해자들로부터 7,9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 검거(모두 구속) 	인천·삼산 경찰서
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16. 12. 29. ~ '17. 2. 16. 콜센터에서 20~3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예금인출 위험이 있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고 속인 다음, ▶ 금감원 직원을 사칭, 피해자들로부터 5,27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(구속) 	서울·용산 경찰서
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17. 2. 13. 콜센터에서 2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되어 은행의 돈이 위험하니 금감원에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고 속인 다음, ▶ 금감원 직원을 사칭, 피해자로부터 3,4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(구속) 	강원·동해 경찰서
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17. 2. 27. 콜센터에서 2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명의 도용으로 보호가 필요하니 돈을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속인 다음, ▶ 금감원 직원을 사칭, 피해자로부터 1,900만원을 건네받으려던 피의자 검거(구속) 	서울·성북 경찰서
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17. 3. 7. 콜센터에서 20대 여성 6명을 상대로 서울지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명의도용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며 돈을 찾아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속인 다음, ▶ 금감원 직원을 사칭, 피해자들로부터 1억 7,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 검거(모두 구속) 	서울·강북 경찰서
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37세 여성 A씨에게 연락하여 "본인 명의의 계좌가 명의도용 되었다"며 피해자를 위협 ▶ 이후 "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금감원 직원에게 보관해야 한다"고 속인 다음, ▶ B씨는 인출한 현금 4천만원을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서 사기범에게 전달 	금융감독원 인근에서 피해 발생
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검찰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28세 여교사 B씨에게 연락하여 "보이스 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으니, 48시간 이내에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"이라며 피해자를 위협 ▶ 이후 피해자에게 "계좌가 이미 노출되어 계좌에 계속 돈을 넣어두면 위험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여의나루역에서 내려 금감원 쪽으로 택시타고 오면서 연락하라"고 요구 ▶ 현금 3천만원을 인출한 피해자는 사기범이 요구와는 달리 여의도역에서 내려 금감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피해 예방 	금융감독원 인근에서 현금편취 시도하였으나, 피해예방

고액현금 인출 전 꼭 확인하세요!

- 1 계좌도용, 대포통장 개설, 개인정보 유출 등이 되었다며
검찰·경찰·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전화 받지는 않으셨나요?
- 2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, 신용거래 내역 또는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어야 한다면
상대방(전화건 사람)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지는 않으셨나요?
- 3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려고 한다는 등
은행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 하라고 하던가요?
- 4 냉장고, 세탁기, 옷장, 지하철 물품 보관함, 창판 아래 등
혹시, 인출한 돈을 위와 같은 장소 등에 보관하라고 하던가요?

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? **전화금융사기(보이스피싱)**가 의심됩니다
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,

즉시 **112**에 신고하세요



금융감독원



경찰청

금융권